

해남 땅끝서 맛보는 가을의 진미 '삼치회' 아시나요



해남 땅끝마을에 가을을 알리는 반가운 손님, 삼치가 찾아왔다. 9월부터 잡히기 시작한 삼치는 날이 쌀쌀해지는 요즘, 지방이 오르면서 삼치 특유의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쌀밥·묵은지와 함께 '삼치삼합' 귀한 대접 해남8미 선정 타 지역서 맛 볼수 없는 별미

삼치는 구이나 조림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싱싱한 삼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해남에서는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 '삼치회'를 찾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새벽에 출항해 추자도 인근에서 잡아오는 땅끝 삼치는 전통방식인 채낚기(훑는발이)로 잡기 때문에 그

물로 잡는 여타 지역과는 신선도에서 비교할 수 없다. 삼치회는 먹는 방법도 있어서도 고추냉이에 찍어먹는 일반 회와는 많이 다르다. 살이 연한 삼치는 껍질을 제거한 후 살짝 얼리거나 그대로 두껍게 썰어 간장과 파, 고추가루, 참기름 등으로 만든 양념장을 찍어 김에 싸서

먹는다. 여기에 따뜻한 밥을 살짝 얹어 먹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삼치회만의 고소함은 비교할 수 없는 맛이다.

해남에서는 묵은지를 더하기도 하는데 김이 모락모락나는 흰 쌀밥과 부드러운 삼치회, 아삭한 묵은지까지 합치면 삼치삼합이라 부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삼치회는 찬바람이 나는 이맘때가 되면 땅끝마을을 훑어다니면 어디서나 맛볼 수 있다. 또 해남 전역의 음식점에서도 땅끝에서 당일 공수한 삼치회를 취급하고 있다.

삼치회는 해남군의 해남8미에도 선정돼 타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해남의 대표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땅끝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원양씨에 따르면 "해남 땅끝에서 잡힌 삼치는 전국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맛으로 잡은 즉시 관내 식당으로 공급돼 전량 소비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의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계절의 별미 삼치회를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마량 도시재생 대학 내일까지 개강

강진군은 최근 마량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마량면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했다.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해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마량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마량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을 발굴하고 마량면에 필요한 재생 사업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참여 도시재생 사례 강의와 마량 자원 찾기, 지역 현안과 의제를 발굴하는 주민워크숍 형태로 진행된다.

이승욱 군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모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강진군, 문화재 활용 정책 전국 선도한다

강진군 지역 문화재 활용정책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시문화과기념관이 기획한 '더 삼 252 영랑생가'가 문화재청 '2021년 고백종갓길' 공모사업에 좋은 평가를 받아 내년도도 지속형 문화콘텐츠로 선정돼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문화과기념관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문화재청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은 △주민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영랑생가 목요음악회를 비롯해 △영랑 감성 아카데미 △영랑 예술학교 △영랑 어린이 시인학교 △영랑생가 사랑방 이야기 프로그램을 주민주도형으로 운영, 영랑생가(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의 문화재적 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바 있는 명품 콘텐츠로 알려졌다.

이승욱 군수는 "11년째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군민의 성원과 공직자의 노력으로 빛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국립 완도난대수목원 조성 힘찬 돛, 파급 효과 눈길

1조 2천억 원 경제적 효과·1만 7천여 명 일자리 창출



지난해 말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로 완도군이 선정됐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에는 2025년까지 국비 100%, 1,900여억 원이 투입된다.

수목원 개장 시 연간 방문 인원은 85만 명을 예상하나 실제로는 그 수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되며, 1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 1만 7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며 기대 효과가 큰 만큼 완도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평가 준비를 위한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중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청과 전라남도, 완도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립난대수목원은 리빙 뮤지엄(Living Museum) 즉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조성 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과거 수목원의 기능인 식물 수집·전시·이용 측면을 넘어서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과 같은 문화적 시설로 발달을 시킬 계획이다.

이는 전라남도와 인근의 광주광역시 인구 중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주요 이용객으로 설정하고 관련 특화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인재 육성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완도군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완도=이민혁 기자

앞으로 완도수목원 400ha 부지에 전시·관람지구, 서비스·교육지구, 보전·복원지구, 연구·지원지구, 배후 지원시설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중심적인 전시·관람지구에는 교육 특화 주제를 비롯하여 사계절 푸르른 난대 수종이 가득한 원터가든, 장보고정원, 완도호랑가시나무원, 트리탑에코로드, 음악 분수 등 다양한 공간이 갖춰진다.

아울러 전국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과 방대한 수목원 내부를 순환하는 산악열차도 설치한다.

이외에도 완도군은 수목원을 공공편의 공간, 복합 여가 공간, 주민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환경으로 조성한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만든 향토 먹거리를 판매하는 로컬 푸드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인근 유휴 농지를 수목원에 납품할 조정 수목, 화훼류 등 재배지로 탈바꿈시키고 주민 주도의 영농화훼조합 등을 출범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난대수목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면서 "국립난대수목원과 해양치유산업을 연계 육성하여 완도를 산림과 바다를 아우르는 치유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고,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군, 회진항 어업용 기자재 창고 준공식

장흥군은 지난 12일 국가어항인 회진항에서 장흥군수협, 회진어촌계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용 기자재 창고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어업용 기자재 창고는 총 사업비 10억 원(국비 8억 원/군

비 2억 원)을 들여 4,016㎡의 부지면적에 가동 209㎡, 나동 271㎡, 2개동 규모로 2021년 6월 30일 완공했으며, 8월 27일자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회진항은 1999년 1월 국가어항으로 승격되어 관리됐으나,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 어촌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

총 사업비 10억원 투입 4016㎡ 부지면적 2개동 규모 안정적 보관·작업 여건 개선 통해 생산성 증대 기대

었다. 이번 준공으로 그동안 어항 내 무단으로 방치된 어업용 기자재의 안정적인 보관과 어업인들의 작업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감·미역·다시마의 생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상 악화 시 선박을 인양하여 임시 거치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해양오염 방제 장비 보관 등을 통해 해양 사고에 다목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우리 군 국가어항인 회진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